

달라진 내용 꼼꼼히 챙겨 '稅테크' 하세요

2007년 연말정산 가이드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신입사원 이정석(가명 27세씨). 올해 초 건설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매월 얼마되지 않은 월급에서 빠지는 공제항목을 보면서 "그냥 내는 돈인가 보다" 하고 무덤덤했던 그녀. 선배 직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에 궁금증이 커진 이정석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그 돈의 정체를 그것을 돌려받을 공리를 하게 됐다. 조금만 노력하면 세테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
- 성형수술·보약비용도 공제 혜택
- 증빙서류 인터넷으로 한번에 OK

일단 작년까지 알고 있던 연말정산 상식은 잊자. 가뜰이나 복잡한 세법이지만 나라살림 형편에 따라 해마다 바뀌는 세법이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다. 올해 바뀐 부분을 꼼꼼히 살핀다면 그만큼 돌려받는 돈도 커질 것이다. 올해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성형수술 및 보약비용의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됐다. 반면에 작년까지 가능했던 의료비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이중공제 혜택이 폐지되는 등 변화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다자녀 추가공제, 성형수술·보약비 공제혜택 등 '신설'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은 연 150만원, 4명이면 연 2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0만원에 150만원의 추가혜택을 받는다. 성형수술·보약비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미용성형수술 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성형수술은 물론 보철, 스키킴 등 치료치료비,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된다. 또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값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늘었다. 작년까지는 취학전 아동이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을 다닐 때 공제받지 못했다. 올해는 체육시설 학원비가 포함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1회 이상) 고습과제까지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자 납부한 수업료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수자 추가공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는 '폐지' =올해 신설된 다자녀 추가공제를 대신해서 근로자 가족이 1명일 경우



2007년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	
● 자녀수에 따른 추가공제 (자녀 1명: 없음, 2명: 연 50만원, 3명: 연 150만원, 4명: 연 250만원)	
● 미용성형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의 의료비 공제 추가	
● 취학전 아동의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통한 교육비 공제 추가	
● 대학의 시간제 등록학점 취득비용 공제 추가	
● 혼인 및 장제 공제 요건을 20세 초과자 혼인 및 남자 60세(여자 55세) 미만의 정례자로 확대	
● 정치 기부금 10만원 이내에서 전액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대상 제외	

우 100만원, 2명일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 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독신가구와 무자녀 및 별이 가구 등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작년 12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받던 의료비 지출액의 혜택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낙심은 말자.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연말정산신고자 중 88%가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미만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다.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작을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혼인 및 장제비 공제대상은 '변경' =작년까지는 10만원

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서 11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 이내에서 10만원까지만 돌려받는다. 혼인 및 장제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부모의 장례나 혼인 등에도 사유당 100만원씩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남자 60세, 여자 55세의 경우에만 장례비 인정이 됐다. △연말정산을 위한 저축상품 가입시 주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는 최고 120만원까지, 연금저축은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이 환수되거나 주의해야 한다.

조동성 기자

◆연말정산은 무엇?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소득을 '간이세액표'에 의해 미리 매달간 공제금액(갑근세)을 연말 기준으로 정산해 초과 징수된 것은 돌려주고 적게 징수된 부분은 걷어가는 절차다. 근로자는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 때 납부한 갑근세액은 회사가 보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된다. 반면에 실제 부담할 세액은 개인이 각종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과납한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게 된다. 이미 지출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라 근로자에게는 13번째 월급으로도 불린다.

◆연말정산은 누가?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주된 대상이다. 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나 학습지 교사 등도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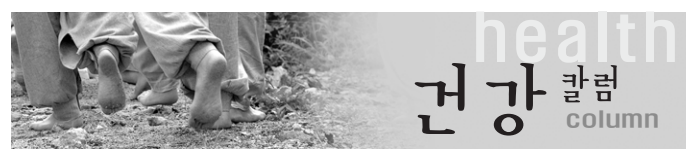
근로자들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소득공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은 직접 챙겨 회사(사업주)에 제출해야 한다. 예전에는 일일이 서류들을 챙겨야 했다. 요즘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인터넷 서비스(www.yesone.go.kr)를 쉽게 해결된다. 이곳에서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구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동의를 얻으면 가족 모두의 증빙서류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언제?

연말정산은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1월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한다. 때문에 12월 말까지 혹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소득증빙자료는 근로자별로 확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원세액을 비교하여 과납한 것은 돌려주고 부족분은 추가징수하게 된다.

◆연말정산은 얼마?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이 낸 것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연말정산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연봉이 3800만원인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면 100만원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됐을 때 18만7000원 정도를 더 돌려 받는다.



11. 고혈압

갑자기 추워진 요즘, 겨울은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벽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치솟기 때문이다. 또한 혈압뿐 아니라 혈액이 진해지고 지질(脂質) 함량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혈관과 말초동맥이 좁아지면서 혈관 저항이 높아지는 등 혈압 상승과 더불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 위험도 더 높다. 고혈압 환자에게 아침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은 아침에 상승하는데, 여기에 차가운 바깥 날씨를 만나면 심장박박이나 뇌졸중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물론 노인이나 일반인들도 겨울철에는 혈압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30%가 고혈압 환자로 추정되지만, 환자의 약 3분의 1은 자신의 혈압이 높은 것을 모르고 지낸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 Hg, 확장기

경을 써야 한다.

적당한 운동은 체중조절과 더불어 혈압을 낮추고 심폐 기능을 개선시킨다. 또한 고지혈증을 막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추운 겨울철에는 운동량이 부족해지는 만큼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실내에서 체조나 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새벽 찬바람에 노출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응급상태가 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새벽에 찬바람을 맞으며 하는 운동은 피하고 따뜻한 햇볕이 나는 낮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후 운동에 들어가는 게 좋다.

외출할 때는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번거롭더라도 한 겹 더 챙겨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밤에는 두껍고 무거운 이불을 덮는 것보다 얇고 가벼우며 보온성이 좋은 이불을 여러 겹으로 겹쳐 덮는 것이 좋다. 또한 이불 속과 방인의 온도 차가 적도록 난방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혈압은 식사요법 등을 통해 평소에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만큼, 염분 섭취를 줄이고, 금주와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식사요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장기조절의 부조화에 서 오는 고혈압의 한방치료를 위해서는 각 증세에 따라 각각 처방을 달리한다. 먼저 신경 증상으로 인한 고혈압에는 시호(小葉胡)를 쓰고, 위장병이 있어서 발병한데에는 반하(半夏)를 쓴다. 그리고 갈비뼈 밑이 단단하고 눌러서 아프거나 답답한 증상으로 고혈압이 생긴 경우에는 대시호탕(大柴胡湯)이나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처방한다. 그 외 기능저하로 인한 고혈압의 경우 보체 및 열성 약제로 처방하는데 다른 병증과 달리 고혈압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토록 하며 이와 함께 식이요법과 평소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적당한 운동 등으로 사전예방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여동원(소중한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법현 스님
법현 스님 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서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쁨으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黔丹山 臨濟禪院 경기도 하남시 하산로 135-3번지 전화 031)792-8825